

비언어적 외설의 의사소통적 가치

김영순(경북대)

0.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비언어적으로 발화되는 외설이 지니는 표현, 의미, 기능 층위의 고찰을 통해 비언어적 외설의 의사소통적 가치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범위 내에서, 행동주의에 기반을 둔 동작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비언어적 외설 표현을 연구하게 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 함은 정의상 언어적 의사소통이 아닌, 즉 언어 이외의 모든 것에 의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므로 상당히 큰 영역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적’의 의미를 ‘몸짓 언어 Körpersprache’에 국한하고자 한다. 몸짓언어에 관한 연구는 일찍이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으로 각 학문분과적으로 혹은 초학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유럽 및 미국의 여러 대학에 ‘의사소통학’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상당수의 인류학자, 심리학자, 기호학자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인류학자인 Birdwhistell(1970)은 ‘몸짓언어학’이라는 용어를 신체언어 기술을 위해 도입하였다. 이로써 그는 대인 의사소통 연구에 있어서 비언어적 행동 영역을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신체의 움직임은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신체 움직임은 의사소통 참여자의 사회적 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인류학자인 Hall은 대인 의사소통 연구에 있어서 ‘인간공간학’이라는 영역을 확립했다. 인간공간학은 의사소통과 설득을 위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연구를 가리킨다. Hall은 대화를 하는 사람들 사이의 공간적인 거리는 그들의 성, 문화, 관계 등의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의 「침묵의 언어」(1959)와 「감춰진 영역」(1966)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연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

* 이 논문은 2001년 조선대 지방대학특성화사업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이 논문은 제3회 한국독어학회 학술대회(2001.6.28.-30. 중앙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쳤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연구에 괄목할만한 연구는 Ekman/Friesen(1972)에 의한 연구이다. 이들은 비언어적 행위들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분류하였는데, 다섯 가지 유형, '표상 emblems', '예증 illustrators', '적용 adaptors', '규제 regulators', '감정 표현 affect-displays'이 바로 그것이다.¹⁾ 그들은 또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접근 방향을 세 가지 부분, 단서(원천적인 행동), 기호화(그 행동과 의미의 관계), 사용(행위자의 행동 양상)로 나누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연구에 있어서 비언어적 외설의 분류 기준 설정에 기여하게 된다.

D. Morris에 이르러 인간의 비언어적 행위들이 문화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기술되기 시작하였다. Morris는 동작과 제스처를 정의하였고 일상 제스처를 60여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간 학문적으로 연구되어 온 기존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연구와는 달리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몸짓언어 기술을 통해, 대중들에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문턱을 낮춘 장본인이다.

이제까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가 생태학, 심리학 등 많은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가 언어적 의사소통 연구보다는 대인 의사소통 연구자들의 관심을 덜 끌었던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 들어 앞서 언급한 Morris 등과 같은 연구자들이 노력한 결과로 인해 대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언어적 측면들이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1) '표상'은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비언어 기호들의 전형이다. 이 표상은 주로 소음이나 거리상의 이유로 대화가 불가능할 때나 침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이들은 관습적이며 언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의도된 기호라서 바로 직접 언어적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말을 대신 할 수 있다. 이들의 사용은 사회 층, 세대, 성, 지역 및 문화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증'은 언술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동작이라서 언술시 전달하는 내용을 보강·보충하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한다. 이들을 Kendon(1986:7)에서는 '몸짓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한다. '규제'는 대화를 유지 조절하는 데 쓰이는 기호이다. 다시 말해 화자와 청자간의 언어적 상관성을 규정하는 언술에 관계되는 동작으로, 예를 들어 여기에는 화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표시로 청자가 머리를 위 아래로 끄덕거리는 행위 등이 속한다. 얼굴 표정과 같은 것은 '감정 표현'에 속한다. 이러한 감정 표현은 주로 심리적 현상들인 두려움, 놀라움, 노여움, 슬픔, 즐거움, 걱정 근심 등을 나타낸다. '적용' 혹은 '신체 조정'은 물건이나 자기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는 행동인데, 예를 들어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으로 심리적 감정 상태를 알려 주는 기능을 한다. 감정 표현과 신체 조정은 언어 체계와는 거리가 먼 비언어 기호들이다.

연구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소위 ‘외설적 표현’이다. D. Morris의 연구에서 ‘외설신호’로 언급되었듯이, 외설적 표현은 언어적 영역에서 보다 비언어적 영역에서 훨씬 그 발화의 분포도가 높다. 이러한 비언어적 외설의 의사소통적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동작기호학적 분석 기제를 도입한다.

이 연구는 머리말을 포함해 모두 5절로 구성된다. 1절에서는 비언어적 외설의 개념을 밝혀보고, 2절에서는 비언어적 외설의 표현 영역을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비언어적 외설의 의미 영역을 기술하고, 4절에서는 의사소통적 기능 영역을 가려낼 것이다. 이와 같이 표현, 의미, 기능 영역을 고찰함으로써 비언어적 외설의 의사소통적 가치를 점검할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1. ‘비언어적 외설’이란

비언어적 외설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 먼저 ‘비언어적’이란 개념을 살펴보자. 이 연구에서 ‘비언어적’이란 개념은 ‘언어적’이란 개념과 대립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다. 즉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말 그대로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는 의사소통인 것이다. 의사소통의 요소는 실제로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 그리고 이 두 요소가 함께 등장하는 언어동반적 sprachbegleitende 요소가 있다. 언어적 요소란 언어적 코드들의 요소이며, 언어동반적 요소들도 언어적 코드와 관련이 있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비언어적 요소들은 언어적 코드와는 무관한 요소들이다. 코드란 메시지를 만들고 풀어내는 일종의 약속이다. 따라서 언어적 코드는 기호발신자 입장에서는 언어 요소를 통해 메시지를 만들어야 하며, 기호 수신자 입장에서는 언어 기호를 통해 그 메시지를 풀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비언어적 코드는 비언어적 기호와 관련이 있다. 언어적, 언어동반적, 비언어적 코드에 의해 만들어지는 발화단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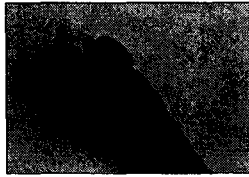
- (1) a. 언어적 코드: 각종 어휘, 숙어, 정서법, 문장성분들의 올바른 배열 등
- b. 언어동반적 코드: 억양, 음의 세기, 음의 강도, 문자체 등
- c. 비언어적 코드: 눈을 부릅뜨는 것, 자리를 바꾸는 것, 방귀를 끼는 것 등

비언어적 외설은 (1c)와 같이 비언어적 코드에 의해 구성된 외설적 행위를 의미한다.²⁾ 비언어적 외설은 코드를 넣는 과정, 즉 비언어적 외설의 기호화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첫째의 경우는, 코드 입력자가 무엇인가를 외설로 지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외설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둘째의 경우, 코드 입력자가 무엇인가를 외설로 인지했고, 그것이 외설로 코드화되었지만 실제 외설로써 지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외설을 인지하는 자의 관점과 대상이 외설로 코드화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른 구분으로 환원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외설의 근원은 원래 외설적인 대상 혹은 비외설적 대상에 대한 외설적 의미 부여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이것에 관한 논의는 2.1절에 계속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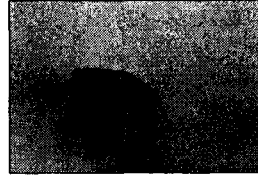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우리는 비언어적 외설을 한 인간이 신체를 움직임으로써 외설적 의도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적 신체 표현에 국한하기로 한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D. Morris(1994:44)에서 소개된 여성의 음부를 표현한 'Feige-Geste'이다(그림1). 이 몸짓은 엄지손가락을 둘째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끼우는 것으로서 누구를 야유할 때 사용된다.³⁾ 언어적으로는 'jm die Feige zeigen(od. weisen, bieten)'으로 발화된다. 이런 음란성을 띤 외설적 몸짓은 지역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에 따라 그 통용성을 보장받게 된다. 먼저 지역적 통용성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어떤 몸짓은 보편적으로 전세계에 걸쳐 통용되지만 특정 몸짓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그 특정의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수다를 떨 경우 그 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때, 손을 펼쳐 입 모양을 만든 후 상하로 움직이는 'Plappermaul-Geste'를 발화한다(그림2).⁴⁾

2) 여기서 '행위 Verhalte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동주의 기호론자들에게 있어서, '행위'는 내적으로 야기된 행위들과 주변 환경 자극에 대한 반응의 총체를 의미한다(Gatterman 1993:295). 이러한 의미에서 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i) 신체의 움직임과 자세: 달리기, 청소하기, 웅크리기, 잠자는 자세 등, ii) 색채 혹은 형상의 일시적 변화: 얼굴 빨개지기, 머리카락 곤두세우기 등, iii) 음성 및 신호 형태의 발화: 노래하기, 악기 연주하기, 불빛 신호 보내기 등, iv) 신체의 생리적 변화: 소변보기, 다이어트 하기 등

3) 'Feige'의 사전적 의미는 무화과나무의 열매 혹은 조개의 일종에 대한 명칭이다. 흔히 '여성의 음부'라는 뜻으로 쓰인다. 한국어에서도 이 제스처와 유사한 외설적 손짓이 존재하며, 여성의 음부에 대해 '조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독일과 한국 언어문화에서 비언어적 외설뿐만 아니라 언어적 외설에서 유사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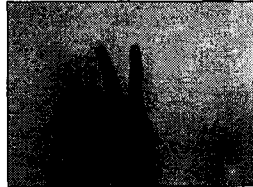


(그림1: Feige-Geste)



(그림2: Plappermaul-Geste)

(그림2)의 몸짓은 유럽 및 아메리카 그리고 심지어는 아시아 및 우리나라에까지 그 통용성이 유효하다. 그러나 손등을 전방으로 하여 'V'자를 만드는 것, 'Rückhand-V-Zeichen'(그림3)의 경우는 특정 지역, 즉 영국잉글랜드에서는 심각한 욕설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손등의 방향과 상관없이 '승리 victory'를 의미한다. 문화적 경계와 관련해서, 외설적 몸짓의 문화적 통용성을 설명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자신의 이마를 치는 'Verflucht-seist-du-Geste'(그림4)의 예를 살펴보자.



(그림3: Rückhand-V-Zeichen)



(그림4: Verflucht-seist-du-G.)

사실상 (그림4)의 몸짓은 북미에서 들어 온 것으로 독일 베를린 지역에는 이미 10대들에게 '지겨운 것', '저주받을 놈'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30대 이상에서는 이 몸짓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단지 한 개인의 습관 '머리에 혹은 이마에 손을 자주 대는 버릇' 정도로 치부되어 취급되고 있다. 우리 한국에서는 '꼴 때려', '아이고 두(머리)야' 등과 같은 언어적 발화와 함께 사용된다. 이러한 몸짓은 지역적 통용성보다는 문화적 통용성에 그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비언어적 외설 행위를 지역적 및 문화적 통용성으로 구분하여 그 발화 의미의 다양함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지역적 통용성이란 어떤 비언어적 외설,

4) 이 몸짓과 함께 발화되는 '음성적 표현'은 감탄사적 의성어로 발화되는데 독일에서는 '블라 블라(bla bla)', 한국에서는 '나불나불(대다)'로 실현된다.

즉 외설적 몸짓이 어느 지역에 나타나는가 하는 지역적 분포와 관련되어 있으며, 문화적 통용성이란 동일하게 발화되는 몸짓이 어떤 의미적 차이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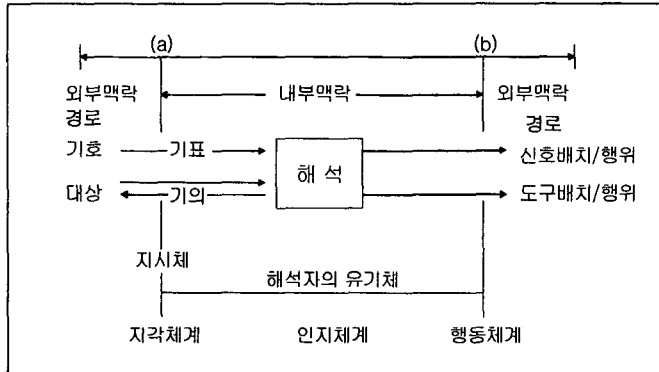
2. 비언어적 외설의 표현 층위

비언어적 외설의 표현 층위와 의미 층위를 고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의사소통적 측면에서의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른바 정보의 수용방식 Modalität과 정보가 교환되는 경로체계 Kanalsystem가 그러하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우리의 감각 기관의 지각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유기체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한 수용방식과 그 반응이 다시 유기체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용방식과 경로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단위로서 기호작용의 틀’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2.1. 의미작용의 매트릭스

임지룡·김영순(1999, 2000)에서는 의미작용과 기호작용의 통합적 매트릭스를 구성하기 위한 통합기호학적 접근의 기초로서 기호작용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한 단위로서의 기호작용이란 하나의 기호를 갖는 하나의 경로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이다. 여기서 기호는 이들 해석체의 유기체내의 기표로서 표현되고 인지되는 것을 통해서 대상체와의 관련성을 갖는다. 그 후 기표는 유기체내에서 기호를 표현하는 기의와 결합한 해석체에 의해 요구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해석체에 의해서 상징화하고 지시화 되는 과정은 도구행위와 신호행위를 위한 배치를 촉진시킨다. 도구행위와 신호행위는 둘 다 해석체와 관련이 있으며 적절한 작동체를 통해서 외현적으로 도구행위와 신호행위를 구별짓는다. 사실상 이러한 행위들은 유기체 반응과도 관련을 갖는다. 즉 도구적 반응과 신호적 반응이 그것인데 전자의 경우는 유기체인 인간의 사고과정을 필요로 하며 학습이 우선되어야 한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이런 사고 과정이 필요로 하지 않기에 신속하고 민첩하다. 각각의 기호작용은 다른 기호작용들에 의해 둘러 싸

여있으며 내부 맥락뿐만 아니라 외부 맥락에서도 기호작용이 발생한다. 상기 제시된 기호작용의 여러 요인들을 토대로 다양하고 부분적인 과정들을 통합한 기호작용 모형을 다음과 같이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5: 한 단위로서 기호작용의 틀)

윗 (그림5)는 한 단위의 전체적인 기호작용을 나타내는 데, 이 작용은 대상과 외부적 관계에 있는 경로 내에 실현된 신호와 함께 첫 시작을 하게된다. 우리는 여기서 의미작용과 기호작용의 상관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의미작용의 영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신자 측이던 수신자 측이던 간에 의미작용은 일련의 과정 '기호-기표-해석-기의-대상'으로 구성된 유기체 내·외부에서 이루어진다. 신호와 대상 사이에는 '기호는 대상 때문에 있다'라는 책임전가식의 관계가 구성되며 이러한 기호와 대상은 둘 다 해석자의 외부에 놓여있다. 이들의 경계는 해석이라고 구성된 네모꼴 상자 양측의 수직선(a) 와 (b)에 의해 제시된다. 이러한 두 수직선 내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해석자의 유기체내에서 일어난다. 이 유기체가 기호를 지각했을 때 이들은 하나의 기호로서 유기체내에서 표현된다. 기호와 유기체내에서의 기호를 구별하지 않는 기호학자들은 이들을 합친 한 분절 [기호, (기표)]을 바로 한 단위의 '기호'라고 불렀다. 전체 기호작용은 이들의 외부 문맥과 내부 문맥 모두를 떠맡는 윗변의 수평선에 의해 잘 제시되어 있다. 기호작용은 유기체에서 표현된 기호로부터 해석을 통해서 유기체에서 표현된 대상에까지 계속 진행되며, 조직내의 대상체에 의해 표현되는 해석자 조직체 외부의 대상을 구별하게 한다.5) 대상으로부터 출

발하여 기의를 통해 해석까지로 기술된 선은 하나의 대상이 처음으로 지각되며, 대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유기체내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기호작용을 나타낸 (그림5)에서 우측 수직선 (b)는 기호작용의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행동결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좌측 수직선 (a)는 기호작용의 지각적 국면을 나타낸다. 외부맥락과 내부맥락의 경계를 이루는 이 두 수직선의 사이에는 해석자 유기체의 인지 영역이 자리하게 된다. 모든 한 단위의 기호작용은 외부와 내부의 두 맥락내에서 이루어지며, 이 맥락들은 해석자의 유기체 내부와 외부에 구성된다.

이 모형은 비언어적으로 발화되는 몸짓기호들을 지각-인지-행동체계의 순환적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표현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한다. 인간의 신체를 한 단위의 유기체로 보고 내부맥락과 외부맥락의 경계에 지각체계와 행동체계를 둔다. 그럼으로써 인간이 지각하고 행동하는 생태학적 과정은 물론 대상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이르는 의미작용과 각 체계별로 이루어지는 교점들을 연결하기 위한 경로들을 한 눈에 읽을 수 있다. 다음절에서는 다양한 경로와 수용방식에 따른 비언어적 외설의 표현적 층위를 살펴보도록 하자.

2.2. 비언어적 수용방식과 의사소통적 분류

2.2.1. 수용방식

비언어적 외설의 표현 층위는 외부 세계의 정보를 수집, 접수하는 인간의 감각 기관에 의해 구분 짓게 된다. 여기에는 단수적 수용방식과 복수적 수용방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볼 경우 이것은 청각적 그리고 시각적 기관을 공유하므로 복수적 수용방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수적 수용방식은 각개 단수적인 방식이

5) 조직체내에 표현되는 대상과 기의를 구별하지 않은 Peirce 및 Morris와 같은 기호학자들은 하나의 분절 [(기의), 대상]를 대상 object, 지시 referent, 외연 denotation, 또한 이들을 의미 meaning이라고 불렀다. 또한 대상의 상징화는 분절 [기호, (기표), (해석)]에 의해 지시된다. 이 대상에 대한 '지시'는 분절 [(해석), (기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호가 대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함언적 관계와는 반대로 분절체 [기호, (기표), (해석)]과 [(해석), (기의), 대상]은 의미의 인과적 관계를 나타낸다.

중복되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는 단수적 수용방식과 복수적 수용방식의 비언어적 외설을 위한 보기를 제공하고 있다.

구분	단수적 수용 방식의 비언어적 외설	복수적 수용방식의 비언어적 외설	
		합성적 synthesische	부가적 additive
발화의 예	Wenn der Rotz richtig hochgezogen wird.	Wenn Leute [...] gähnen, ohne sich die Hand vorzuhalten und, wenn es geht, noch was im Mund haben.	... gelangweiltes Gähnen im Unterricht
수용 방식	청각적	청각적/시각적	시각적/청각적

<표1: 수용방식에 따른 비언어적 외설의 분류>

윗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언어적 외설의 발화 형태는 그 수용방식에 따라 단수적으로 행해지느냐, 복수적으로 행해지느냐가 따라 구분될 수 있다. Schmauks (1991) 및 Delhees(1994)에 의해 제기된 단수적 수용방식과 그 발화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청각적 수용(auditiv): 소음, 비명, 음악 등의 음의 인지

Er zieht den Schnodder hoch, schluckt ihn bis in den Rachen und spuckt den Schnodder dann aus.

2) 시간적 수용(chronomisch): 빠름 및 느림 등의 시간적 인지

Man musste glatt stundenlang durchs Geschäft "rennen", um ihn richtig schön ins Schwitzen zu bringen.

3) 통증적 수용(dolorisch): 아픔의 인지

Sich in betrunkenem Zustand auffällig zu verhalten in Form von Handgreiflichkeiten.

4) 감촉적 수용(humidisch): 축축하나 혹은 건조하나 등의 물기와 관련된 감촉의 인지

... eigenen Zeigefinger anfeuchten in den Mund stecken

5) 후각적 수용(olfaktorisch): 냄새에 대한 인지
In geselliger Runde [...] bestimmte Körpergeräusche und -düfte abzulassen.

6) 호흡적 인지(pneumatisch): 호흡과 관련한 인지
Beim Niesen oder Husten die direkte Ansteckung anderer Leute provozieren.

7) 자극적 인지(taktil): 피부를 통한 자극의 인지
..., dass ein Fremder einem eben auf die Wangen geküsst hat.

8) 감온적 인지(themal): 더움, 추움, 선선함 등 체온에 의한 인지
Während ich da liege, fasst er mir plötzlich mit seiner kühlen Hand auf den Rücken.

9) 시각적 인지(visuell): 색채, 밝기 등 시각에 의한 인지
Wenn jemand vor mir sitzt und sich mit mir unterhält, aber ständig dabei an seinen Nägeln oder seinen Haaren kaut.

이번 절에서는 감각기관 및 경로에 따른 9가지의 인지 형태(청각적, 시간적, 통증적, 감촉적, 후각적, 호흡적, 자극적, 감온적, 시각적)와 비언어적 외설의 발화 용례를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비언어적 외설의 발화가 시각적 및 청각적 수용형태를 넘어서 그 밖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용됨을 알 수 있었으며 단일 수용방식뿐만 아니라 복합 수용방식도 취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다음절에서는 이러한 비언어적 외설의 표현 형태가 어떤 의사소통적 기호로 분류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2.2.2. 비언어적 외설의 의사소통적 분류

이 절에서는 몸짓언어적으로 발화되는 비언어적 외설을 의사소통적 기호로 간주하기 위한 기호학적 분류를 시도할 것이다. 그 후 Schmauks와 Delehes가 제안한 비언어적 행동의 7가지 하위분류와 대조하여 비언어적 외설의 새로운 분류기준을 제안하겠다. 먼저 인간 신체의 움직임 및 방향성 여부를 중심으로 14가지의 비언어

적 외설의 기호학적 분류 항목과 그 발화의 실례를 제시할 것이다.⁶⁾

1) 신체간격 Körperabstände: 기호수신자와 발신자간의 공간적 거리

Wenn jemand in eine Gruppe kommt und man provokativ drei Meter weggeht

2) 신체은닉 Körperbedeckungen: 기호수신자의 신체나 신체 일부의 시각적 인지도 결여

Wenn jemand in der Schule vor mir sitzt, sich nach vorn beugt und mir dadurch die Poritze zeigt.

3) 신체접촉 Körperberührungen: 기호수신자와 발신자간 신체의 접촉

Wenn mich jemand in der Disko [...] anspricht, mit mir was trinken will und gleich, ohne mich zu kennen, seine Hand auf meinen Schenkel plaziert.

4) 신체관찰 Körperbetrachtungen: 기호수신자와 발신자간의 상호 관찰

Wenn man jemanden, den man nicht leiden kann oder hässlich findet, beim Vorbeigehen von oben herab bzw. von oben nach unten mit einem fiesem abfälligen Blick mustert bzw. ihn anstarrt.

5) 신체움직임 Körperbewegungen: 신체 혹은 신체 일부의 역동적인 변화

Popeln in Gesellschaft finde ich unhöflich. Wenn die Person unbedingt popeln muss, könnte sie oder er das ja heimlich und unbeobachtet machen.

6) 신체시위 Körperdemonstrationen: 기호수신자와 발신자간의 신체적 비교 제시

Jemand, der wesentlich grösser als ich, stellt sich neben mich, um so das verbale Gelächter zu flankieren.

7) 신체소음 Körpergeräusche: 신체에서 발생하는 음향

... Deshalb tue ich dann immer so, als wenn ich einen Furz lasse.

8) 신체냄새 Körpergerüche: 신체에서 발생하는 냄새

6) 비언어적 외설 표현을 가장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취해지는 몸짓을 동영상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언어적 표현을 통한 차선의 방법을 강구한다. 표현 층위의 기술을 위해 사용된 예문들은 본인이 베를린공대 기호학연구소 국제 제스처 프로젝트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시 베를린 및 포츠담지역에서 사용하는 구두적 성향을 지닌 문어적 표현들의 코퍼스들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Wenn ich neben einer Person sitze und ein ganz übler Schweissgeruch an meiner Nase vorbeizieht, das finde ich ziemlich eklig.

9) 신체자세 Körperhaltungen: 신체 혹은 신체 일부의 정태적 상태
Das einfache Zeigen der geballten Faust

10) 신체인상 Körperimpressionen: 타자의 신체에 대한 통합적 느낌
Von meiner Mom der Freund ist eine nichtsprachliche Unflätigkeit. Immer wenn ich ihn sehe, muss ich kotzen.

11) 신체심리 Körperphysiologien: 신체 관련 심리적 과정
..., dass mein Bruder und mein Vater oft einfach darauflos rülpsen.

12) 신체배치 Körperplatzierung: 신체들간의 위치
Die zweite Aufsicht stellt sich hinter mich, um von hinten meine Klause zu lesen.

13) 신체장식 Körperschmückungen: 신체 외양의 변화
Ich will eine Frau beeindrucken und zeige den angespannten Bizeps.

14) 신체시간 Körperzeitlichkeiten: 행위의 시간적 흐름
Mein Freund kommt oft nach Verabredung 10-15 Minuten zu spät.

이와 같이 14가지의 비언어적 행위의 발화 형태는 Schmauks가 제안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7가지 하위체계와 관련성을 갖게된다(Delhess, K. D. 1994:11-29).

Schmauks의 분류	외설적 특성을 지닌 비언어적 기호 분류
근접학	신체간격, 신체냄새
자세학	신체은닉, 신체자세
동작학	신체접촉, 신체인상
표정학	신체관찰, 신체심리
근육학	신체움직임, 신체배치
공간학	신체시위, 신체장식
기 타	신체소음, 신체시간

<표2: 비언어적 외설적 기호 분류>

표에서 나타난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 영역 중에서도 '신체자세'와 '신체움직임'은

비언어 외설적 발화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두 부류는 Schmauks의 7 가지 하위 체계 중 자세학, 동작학, 표정학 영역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비언어적 외설의 발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1) 동작학-신체움직임 영역

Wenn z.B. der Stinkefinger zur Bekräftigung noch vertikal hoch und runter bewegt wird.

2) 동작학-신체자세 영역

Ich habe dich nicht verstanden.... und sich provokant nach vorn beugt und ein Ohr hinhält.

3) 표정학-신체움직임 영역

Die Zunge beim Rausstrecken hin- und herbewegen.

4) 표정학-신체자세 영역

Eine sogenannte Maske aufsetzen.

5) 자세학-신체움직임 영역

Sich in der Poritze kratzen.

6) 자세학-신체자세 영역

Die Fäuste provokativ in die Hüften stemmen.

이 절에서는 Schmauks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하위 분류체계와 행동주의에 기반을 둔 동작기호학에서 분류하는 외설적 특성을 지닌 비언어적 기호 분류를 살펴보았다. 일르 통해 몸짓으로 표현되는 비언어적 외설의 행위들은 표현 층위에 있어서 무질서한 것이 아닌 체계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비언어적 외설의 의미 층위

이번 절에서는 비언어적 외설의 의미 층위를 다루는데,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

로 ‘비언어적 외설’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Unflätigkeit’를 여기서는 ‘외설’로 번역하여 이해하지만 본래 가지고 있는 어휘적 의미는 다양하다. 이들 중 대표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면 ‘Aggressivität’, ‘Anspielung’, ‘Anstössigkeit’, ‘Arglistigkeit’, ‘Aufdringlichkeit’, ‘Beleidigung’, ‘Bissigkeit’, ‘Bosheit’, ‘Falschheit’, ‘Grobheit’, ‘Hinterlistigkeit’, ‘Infamie’, ‘Intriganz’, ‘Missgunst’, ‘Neckerei’, ‘Penetranz’, ‘Scheinheiligkeit’, ‘Scheelsucht’, ‘Stichelei’, ‘Unhöflichkeit’, ‘Unschicklichkeit’, ‘Verschlagenheit’, ‘Zweideutigkeit’ 등이다. 이러한 비언어적 외설의 의미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해 유형에 따라 열거된 것이다.

- (2) a. 의도-기능적 의미이해 유형: 비언어적 외설의 목표
- b. 인과 부가-기능적 의미이해 유형: 비언어적 외설의 원인
- c. 지시-어원론적 의미이해 유형: 비언어적 외설의 유래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의미이해 유형을 근거로 8가지 의미 유형의 분류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 (3) a. 무의미적 외설 bezugslose Unflätigkeit
- b. 차별적 외설 diskriminierende Unflätigkeit
- c. 인종적 외설 rassistische Unflätigkeit
- d. 반항적 외설 rebellische Unflätigkeit
- e. 성적 외설 sexistische Unflätigkeit
- f. 무례적 외설 unhöfliche Unflätigkeit
- g. 경멸적 외설 verächtliche Unflätigkeit
- h. 세계관적 외설 weltanschauliche Unflätigkeit

아래에서는 (3a-h)에 따라, 독일의 일상 생활 속에서 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비언어적 외설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동반되어 발화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살펴볼 것이다. 각 예문의 (a)는 비언어적 외설의 표제어를, (b)에서는 기호통사론적 기술, 즉 비언어적 외설의 표현 층위를, (c)는 가능한 의미 영역을, (d)는 동반 가능한 언어적 발화에 대해 기술하겠다.

- (4) a. *Bei-Dir-ist-eine-Schraube-locker-Geste*
- b. 검지를 측면어마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듯이 돌린다.

- c. 경멸 혹은 경시의 의미
 - d. Du spinnst. Du bist ja verrückt. Bei Dir ist eine Schraube locker.
- (5) a. *Brett-vor-dem-Kopf-Geste*
 b. 펼친 손바닥으로 이마를 여러 번 때린다.
 c. 이해가 안될 경우 혹은 경멸적인 몰이해
 d. Du hast ein Brett vor dem Kopf. Du hast eine Macke.
 Du bist bescheuert. Man bist Du blöd.
- (6) a. *Du-hast-einen-Vogel-Geste*
 b. 검지를 가지고 머리의 상단부를 톡톡 친다.
 c. 경멸 혹은 경시의 의미
 d. Du hast einen Vogel. Hast Du einen Vogel.
 Du spinnst. Du bist ja verrückt.
- (7) a. *Du-tickst-wohl-nicht-richtig-Geste*
 b. 검지를 가지고 관자놀이를 톡톡 친다.
 c. 경멸 혹은 경시의 의미
 d. Du tickst wohl nicht richtig.
- (8) a. *Feige-Geste*
 b. 검지와 중지사이에 엄지를 넣어 주먹 모양을 만든다(참조: 그림1)
 c. (성적인) 모욕 혹은 욕설의 의미
 d. Fick Dich. Wollen wir ficken.
- (9) a. *Fortze-Geste bzw. Arschloch-Geste*
 b.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구멍 모양의 둥그런 원을 만든다.
 c. (성적인) 모욕 혹은 욕설의 의미
 d. (Du bist eine) Fortze. Du Arschloch.
- (10) a. *Hals-durchschneiden-Geste*
 b. 검지 혹은 펼친 손을 목 주변에 대고 수평으로 자르는 손짓을 한다.
 c. 강력한 위협 및 협박, 공포 분위기 조성
 d. Verrecke Du Aas. Ich mach Dich kalt. Bring Dich um.
- (11) a. *Kleiner-Stinkefinger-Geste*
 b. 주먹을 만든 후 새끼손가락을 펼쳐 위로 올린다.

- c. (성적인) 모욕 혹은 욕설의 의미
- d. Fick Dich. Du kannst mich (mal).

(12)a. *Kotz-Geste*

- b. 검지를 입에다 넣는 흉내를 낸다.
- c. 모욕 혹은 욕설의 의미
- d. Ich muss gleich kotzen. Mir wird gleich schlecht.
Ich finde Dich zum Kotzen.

(13)a. *Poppen-Geste*

- b. 한 손으로 원을 만든 후 다른 한 손은 펼쳐서 그 원 속에 여러 번 넣었다 빼는 동작을 취한다.
- c. 모욕적인 경향을 지닌 성적 제공
- d. Wollen wir ficken Wollen wir bumsen. Wollen wir arschficken.

(14)a. *Scheibenwischer-Geste*

- b. 펼친 손을 얼굴 주변에 대고 마치 유리창을 닦는 동작을 한다.
- c. 이해가 안될 경우 혹은 경멸적인 물이해
- d. Hast Du eine Makke. Spinnst Du.

(15)a. *Stinkefinger-Geste*

- b. 주먹을 쥔 후 중지를 펼쳐 위로 여러 번 올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 c. (성적인) 모욕 혹은 욕설의 의미
- d. Du kannst mich (mal). Fick Dich.

(16)a. *Tschü-üss-Geste*

- b. 마치 헤어질 때 한 손을 들어 흔드는 손짓을 취하되 손가락을 상하로 움직인다.
- c. 모욕 혹은 욕설의 의미
- d. Zieh Leine. Verschwinde.

(17)a. *Weg-wisch-Geste*

- b. 한 손으로 책상을 닦는 것과 같은 손짓을 만든다.
- c. 모욕 혹은 욕설의 의미
- d. Verzieh Dich. Hau ab. Mach Platz.

이 절에서는 비언어적 외설의 의미 층위와 아울러 수반되는 언어적 발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독일 베를린 및 포츠담 지역에서 젊은이들 층에서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14가지의 비언어적 외설 표현들의 통사론과 의미를 열거했으며, 함께 동반되는 언어적 발화도 제시하였다. 여기서 비언어적 외설의 주요 의미들은 경멸, 경시, (성적) 모욕 및 수치심 유발 등으로 파악되었다.

4. 비언어적 외설의 기능 층위

비언어적 외설의 기능이란 비언어적 외설에 참여하는 몸짓기호들의 사용 양상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의사소통의 인과원칙 Kausalitätsprinzip에 관련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비언어적 외설의 의사소통적 기능을 네가지 차원, 다시 말해 표현 기능, 정보 기능, 규제 기능, 조정 기능의 차원으로 나누어 구분할 것이다.

4.1. 표현 기능적 차원

가장 다양한 비언어적 외설의 기능을 보여주는 층위로서, 주로 감정 표현과 관련되어 있다. 대표적인 기능을 들면 세정, 위협, 서술, 굴욕, 반응, 반항적 기능을 들 수 있다.

1) 세정적 기능 Abstersionsfunktion: 마음과 영혼을 정화시킴

Zum Schluss kann er verständlicherweise nicht mehr an sich halten und verdreht - mit dem Zorn des Gerechten im Herzen - genervt aufstöhnend die Augen.

2) 위협적 기능 Aggressionsfunktion: 싸움을 하는 데 기여

Ich starre ihn unübersehbar an und harre der Dinge, die da hoffentlich kommen werden.

3) 서술적 기능 Deklarationsfunktion: 임의의 반응 방식을 설명함

Der Chef lässt den neuen Mitarbeiter erst einmal eine halbe Stunde warten, damit dieser gleich mitkriegt, wie hier der Hase läuft.

4) 굴욕적 기능 Kauditionsfunktion: 굴욕적 감정을 나타냄

Um ihm meine Geringschätzung zu zeigen, drehe ich ihm während des gesamten Gespräches den Rücken zu und schaube sonstwohin.

5) 반응적 기능 Reaktionsfunktion: 무엇인가에 의해 야기되는 영향
Seine im Handgelenk kreisenden Fehelbewegungen mit der Hand zeigen,
dass der etwas genervt ist und ihm das Gespräch mit mir wohl etwas zu
blöd ist.

6) 반항적 기능 Rebellionsfunktion: 주변 환경에 대해 불만족함으로써 반항감을
표출
Um meinem Missfallen Ausdruck zu verleihen, zeige ich eine betont lässige
Körperhaltung und betrachte eingehend meine Fingerspitzen.

4.2. 정보 기능적 차원

정보 기능적 차원은 정보 전달에 관련한 기능 영역으로서 정보의 확대, 융합, 모순, 수식,
대치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1) 확대적 기능 Amplifikationsfunktion: 다른 행위 방식을 지원함
Während ich etwas sage, zeichnen meine Hände die entsprechenden Konturen
in die Luft.

2) 융합적 기능 Integrationsfunktion: 불완전한 행위를 보충함
Ich bin in ein Streitgespräch verwickelt und kann aber aufgrund der
Umgebung nicht offen reden. Also sage ich: Du bist ein und zeige auf
meinen Hintern.

3) 모순적 기능 Kontradiktionsfunktion: 행위와 다른 의미로써 기능
Xaver trifft auf einer Party den Ex seiner Freundin und sagt mit verächtlich
verzogenen Mundwinkeln: "Schön, dich endlich kennenzulernen."

4) 수식적 기능 Modifikationsfunktion: 다른 행동방식을 약화하거나 강화시킴
...Das stimme ich zu. Nicht jedoch ohne ein vernehmliches Unmutsschnaufen
vor mir zu geben, damit sie dafür sorgt, dass sich dieser kurz gestaltet.

5) 대치적 기능 Substitutionsfunktion: 다른 행위 방식으로 대치
Ein Lehrer fragt einen unaufmerksamen Schüler: Sag mal [...]. Antwort der
Schülers: Er zuckt mit seinen Schlutern.

4.3. 규제 기능적 차원

규제 기능적 차원의 비언어적 외설의 의사소통적 기능은 등위, 분절, 종결적 성격의 기능을 담당한다.

- 1) 등위적 기능 Koordinationsfunktion: 의사소통 현상에 병렬적으로 나타남
Wann immer ich in einer Diskussion mit einem Kontrahenten die Sprecherrolle übernehmen will, sagt der: “Eines muss ich noch schnell sagen”. und fuchelt mit seiner Hand vor meinem Gesicht herum.
- 2) 분절적 기능 Segmentationsfunktion: 대화의 흐름을 분절시킴
Herr Frank besteht im Disput auf die Richtigkeit seiner Argumente. Jedes Argument begleitet er durch ein energisches Zeigefingerstechen in Richtung Gesprächspartner.
- 3) 종결적 기능 Terminationsfunktion: 의사소통 참여자간의 소통을 종결함
...Nach einigen Sekunden schaue ich auf die Uhr, lächle ihn an und gehe - meine Freundin hinter mir herziehend - einfach weiter.

4.4. 조정 기능적 차원

조정적 기능은 의사소통 흐름을 조절하는데 그 기능을 들면 제한적, 입지적, 선동적 성격을 띄게 된다.

- 1) 제한적 기능 Limitationsfunktion: 행위 요구를 제한함
...Als dieser eine entschuldigende Erklärung abgeben will, winke ich geringschätzig ab und ignoriere ihn danach.
- 2) 입지적 기능 Positionsfunktion: 사회적 지위 구분 및 이에 관련된 행위를 요구함
...Damit die das nicht vergessen, dränge ich einen beiseite, der mir gerade im Weg steht.
- 3) 선동적 기능 Provokationsfunktion: 적의가 있는 상대한 대한 의식적 요구
...Trotzdem ist sie vorgeblich sehr freundlich. Damit sie endlich Farbe bekennt, spleie ich in ihren Beisein mit den Harren ihrer Tochter.

지금까지 의사소통 인과원칙에 따라 표현, 정보, 규제, 조정기능의 차원으로 비언어 외설적 발화를 구분해 보았다. 이들 차원들은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적으로 발화되는 외설의 표현, 의미, 기능 층위의 동작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비언어적 외설이 지니는 의사소통적 가치를 탐구해 보았다. 여기서 얻어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언어적 외설의 수용방식은 단수 감각적 방식과 복수 감각적 방식이 있다. 지금까지 비언어적 외설이 주로 시각 혹은 청각적 경로에 의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한 시간적, 통중적, 감촉적, 후각적, 호흡적, 자극적, 감온적 경로를 통한 9가지의 수용방식을 제안하였다.

2) 비언어적 외설의 의사소통적 분류를 시도하였다. Schumaks 등의 행동주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분류의 7가지 하위체계를 기본으로 이 연구에서는 14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여기에는 신체간격, 신체은닉, 신체접촉, 신체관찰, 신체움직임, 신체시위, 신체소음, 신체냄새, 신체자세, 신체인상, 신체심리, 신체배치, 신체시간이 속한다.

3) 비언어적 외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의도-기능적 의미(비언어적 외설의 목표)’, ‘인과 부가-기능적 의미(비언어적 외설의 원인)’ 그리고 ‘지시-어원론적 의미(비언어적 외설의 유래)’의 이해 유형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8가지 의미 유형의 분류 모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무의미적, 차별적, 인종적, 반항적, 성적 외설, 무례적, 경멸적, 세계관적 외설의 의미 유형이 있다.

4) 비언어적 외설의 기능적 영역은 크게 표현, 정보, 규제, 조정 기능의 차원으로 구분되며 각 기능 영역별로 구분된 세부기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현 기능 영역	정보 기능 영역
세정적, 위협적 서술적, 굴욕적 반응적, 반항적	확대적, 응합적 모순적, 수식적 대치적
비언어적 외설	
등위적 분절적 종결적	제한적 입지적 선동적
규제 기능 영역	조정 기능 영역

<표3: 기능역역별 세부 기능>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비언어적 외설도 언어적 기술 체계와 같이 분류되고 분석될 수 있는 연구대상이며, 언어에 의존하는 의사소통에 못지 않은 중요한 가치를 지님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부족한 것은 단지 비언어적 외설의 표현, 의미, 기능 층위의 분류체계만이 제시되고 발화 관련 코퍼스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좀더 광범위하고 범지역적인 코퍼스 확보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일개인의 단독 연구가 아닌 언어학, 문화학, 심리학 등에 걸친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해 극복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순(1999), “다중문화교육을 위한 동작분석 방안”, 『이중언어학 16』, 이중언어학회.
- 김영순(1999), “언어 기호로서의 인간 동작”, 『언어과학연구 16』, 언어과학회.
- 김영순(2000), “Principles for the Making Korean Gesture Dictionary”, The 12th ICKL(July 13~15. 2000, Praha, Czech Republic).
- 김영순(2000), “감탄사를 수반한 독일인 신체언어 읽기”, 『독어학 2』, 한국독어학회.

- 김영순(2000), “한국인 손동작의 의미와 화용”, 『한국어어미학 6』, 한국어어미학회.
- 김영순(2000), 『신체언어 커뮤니케이션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순(2002), “손짓 기호로 광고텍스트 읽기”, 『기호학연구 10』, 한국기호학회.
- 성광수(1999) “이중언어교육과 비언어적 소통”, 『이중언어학 16』, 이중언어학회.
- 성광수(2001), “한국어에 있어서 몸짓과 발화의 관계”, 『이중언어학 19』, 이중언어학회.
- 성광수·김성도·김영순(1998), “몸짓과 발화: 한국·독일 화자간의 비구두 커뮤니케이션의 기호-화용론적 기본 원리”, 『고려대-베를린공대 국제 공동 연구 자료집』.
- 성광수·이정식·고광주(2000), The Importance of Gesture Learning for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12th ICKL(July 13~15. 2000, Praha, Czech Republic)
- 이석주(2000), “신체언어와 의사전달”, 『국어교육 10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임지룡·김영순(1999), “의미작용과 기호작용의 통합”, 『현대문법연구 19』, 현대문법학회.
- 임지룡·김영순(2000), “담화 매체의 기호 체계에 관하여”, 『독일어문학 11』, 독일어문학회.
- 임지룡·김영순(2000), “신체언어와 일상언어 표현의 의사소통적 상관성”, 『언어과학 17』, 언어과학회.
- 추계자(1998), “비언어적 요소인 한·독 신체언어 기호의 비교 분석”, 『독일어문학 7』, 독일어문학회.
- 추계자(2000), “화용론적 관점에서 본 독일어 신체언어 기호”, 『독일어문학 11』, 독일어문학회.
- Argyle, M.(1972),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social interaction. In R. A. Hinde (ed), *Nonverbal communication*. London: CUP.
- Armstrong, D. F./Stokoe, W. C./Wilcox, S. E.(1995), *Gesture and the Nature of Language*. CUP. 김영순 외역(2000), 『몸짓과 언어본성』, 한국문화사.
- Birdwhistell, R. L.(1970), *Kinesics and Context: essays on body motion communication*.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 Delhess, K. D.(1994), *Soziale Kommunikation*. Opladen: Westdeutscher.
- Ekman, P./Friesen, W. V.(1969), “The Repertoire of Nonverbal behavior: Categories, Origins, Usage, and Coding.”: *Semiotica* 1, 49-98.
- Ekman, P./Friesen, W.V.(1972), Hand Movem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22, 353-74. Dt. 1979. Handbewegungen. in Scherer, K.R./H.G. Wallbott

- (eds.)(1979), 108-23.
- Gattermann, R.(Hg.)(1993), *Verhaltensbiologie*. Jena: Fischer.
- Hall, E. T.(1959), *The Silent language*. Greenwich: Fawcett.
- Hall, E. T.(1966), *The Hidden Dimension*. Garden: Anchor, Dt. 1976. *Die Sprache des Raums*. Düsseldorf: Schwann.
- Kendon, A.(1986), Nonverbal Communication. In Sebeok, T. A. (ed), *The Semiotic Sphere*. New York: Plenum.
- Molcho, S.(1994), *Körpersprache*. München: Mosaik Verlag.
- Morris, D.(1994), *MANWATCHANG: A Field Guide to Human Behavior*. London: Jonathan Cape. 과학세대 역(1994), 『맨워칭: 인간행동을 관찰한다』. 까치글방.
- Scherer, K.R./Wallbott, H.G.(1979), Methoden zur Klassifikation von Bewegungsverhalten: Ein funktionaler Ansatz. *Zeitschrift für Semiotik*, 1108-23.
- Schmauks, D.(1991), *Dexis in der Mensch-Maschine-Interaktion*. Tübingen: Niemeyer.

Zusammenfassung

Der kommunikative Wert der nichtsprachlichen Unflätigkeiten

Kim, Young-Soon(Kyungpook Nat'l Univ.)

In der vorliegenden Arbeit ist demonstriert worden, dass mittels der geste-semiotischen Untersuchungsmethode man die nichtsprachliche Unflätigkeit als Zeichen mit dem kommunikativen Wert betrachten kann. In dieser Arbeit wurde die nichtsprachliche Unflätigkeit drei Ebenen dargestellt, d.h. Ausdrucks-, Bedeutungs- und Funktionsebene.

Auf der Ausdrucksebene nichtsprachlicher Unflätigkeiten können all jene Zeichen möglichst einer bestimmten Zeichengruppierung zugewiesen werden. Die körpersprachliche Zeichengruppe liegt im folgenden: Körperabstände, -bedeckungen, -berührungen, -betrachtungen, -bewegungen, -demonstrationen, -geräusche, -gerüche, -haltungen, -impressionen, -physiologien, -plazierung, -schmückungen und -zeitlichkeiten.

Im Paradigma der Grundbedeutung einer jeden nichtsprachlichen Unflätigkeiten gibt es

drei Typen des Bedeutungsverständnis: das intentions-funktionale-, das kausalattributiv-funktionale- und das referenziell-ethymologische Bedeutungs- verständnis. Nach diesen Typen können nichtsprachliche Unflätigkeiten folgende Bedeutungen klassifiziert werden: bezugslose-, diskriminierende-, rassistische-, rebellische-, sexistische-, unhöfliche-, verächtliche- und weltanschauliche Bedeutung.

Da eine nichtsprachliche Unflätigkeit in vier verschiedenen Funktionsdimensionen, d.h. Expressionsfunktions-, Informationsfunktions-, Regulationsfunktions- und Manipulations-funktionsdimension, präsent ist, hat sie mindestens vier Funktionen. Für jede dieser vier Funktionen muss nun entschieden werden, welchem Funktionsverständnistyp diese zuzuordnen ist. Wobei man auch feststellen kann, dass bestimmte Funktionen durch ihre Definition eine Zuordnung zu dem einen Funktionsverständnistyp leichter machen als zum anderen. Beispielsweise haben die Funktionen der Expressionsfunktionsdimension einer grössere Tendenz zum selbstzweckdienlichen Funktionsverständnistyp als die Funktionen der Regulationsdiemension.

[검색어] 몸짓언어, 비언어적 외설, 경로체계

Körpersprache, nichtsprachliche Unflätigkeit, Kanalsystem